**성가정 축일(2017년 12월 3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지난 주부터 우리는 엄청난 하느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행복해 지기 힘들고, 또 잘 웃지도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좀 웃으세요. 얼굴에 미소도 좀 띄시고... 기쁘면 기쁜 척 좀 하시고, 행복하면 행복한 척 좀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보다는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고, 걱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나 봅니다.

올 해도 다 지나갔고, 새해에는 자주 그리고 많이 웃고 사십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자신의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찡그리고 인상 쓰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보다 많이 웃고 삽시다. 웃으면 진짜 행복해 집니다.

여러분들 댁에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개를 키우고 함께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개는 대부분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젼도 보고, 신문도 보고, 어떤 개는 주인이랑 같이 커피도 마십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귀여움과 관심을 다 받으니까 자기가 진짜 사람들과 똑같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개가 거울을 보고 막 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디서 이상하게 생긴 놈이 거울에 비치니까 놀라는 거죠. 설마 그 놈이 자기 자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날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모습이 강아지로 보인다면... 이 얼마나 해괴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비명을 막 지르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기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속에 이상한 놈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울보고 난리를 치고 막 짖는 겁니다. 개는 늘 자기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자신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 좀 더 많이 자주, 웃으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 좀 하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고, 웃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진짜 행복해 집니다.

제가 미국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도 서로 웃고 인사합니다. 그렇죠?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주지요.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길가다가 눈이 마주쳐서 웃어주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또 괜히 웃어주었다가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이 인간을 내가 어디서 만난적이 있나? 어디서 봤더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때론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늘 웃으면서, 더 많이 행복하게 삽시다. 많이 행복한 척 하고 삽시다. 그럼 진짜 행복해 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 후에 오는 첫번째 주일에 지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모든 가정의 모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특별한 장소인 가정,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모든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유산 그리고 종교적인 유산을 자손 대대로 전수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세대간에 이어지는 대화와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오늘 성가정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장한 어른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로 한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 가정 안에서,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증거입니다. 사람인척 사람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의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진짜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성장과 생활은 예수님 일생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0년을 가정에서 평범하게 생활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성가정은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늘 행복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일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사실, 그 성가정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 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엄마는 처녀였는데 임신을 했고, 아버지는 아이의 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없애려는 여러가지 위협과 박해를 피해서 먼 이국 땅 이집트로 피난가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살았습니다. 나자렛에서 이집트까지 수만 마일이 됩니다. 그 당시 거기를 걸어서 갔을텐데, 몇년에 걸쳐 갔을거고,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거지처럼, 때로는 구걸도 하고, 비바람 피할 곳도 마련하지 못해서 노숙한 날도 많았을 겁니다. 가진 돈도 얼마 없어서 늘 궁하게 지냈을테죠.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신분은 막일하며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었죠.

집안도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당시의 가난하고 미천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하고만 늘 어울려 다니고, 하라는 일은 안하고, 하라는 공부도 안하고, 늘 밖으로 쏘다니기만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속 상당히 썩이는 자식이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부모 자식 인연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정은 언제나 평화로왔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고, 언제나 기쁘게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아무 불평 없이... 내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어떠했을까요? 힘들고 답답해서 때려쳐도 아마 오래 전에 때려쳤을 겁니다.

하느님이 언제나 이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한 연민과 존경, 친절과 겸손, 그리고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았고, 또 함께 웃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늘 행복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랑과 기도안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성장시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예수는 부모의 모범과 신앙을 보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정 안에서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준비해 나갑니다.

가정은 그 하나 하나가 하느님의 거룩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 삶의 첫번째 학교이고, 인간 성장의 교실입니다. 가정안에서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넘어졌을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한 인간 가정에서 착실하게 성장했던것 처럼,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느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거울삼아,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감당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지금,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삶 안에서 보여준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 한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메세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